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機務司)가 지금 존폐의 기로(岐路)에 서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거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해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는 '해체해야 한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

세계 민주역사에서도 유례가 드문 평화적인 촛불혁명 당시 초창기부터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하고 장갑차, 탱크, 무장병력, 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촛불시위를 진압하고자 기무사가 작성했던 문건이 발견되어서 정국이 발각 뒤집히고,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인도를 국민 방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과 긴박성을 잘 깨닫고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신속히 수사하려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단의 조치다.

국군의 주류인 육군이 아닌 공군 대령이 특별수사단장을 맡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7월 16일, 문 대통령은 또 다시 '촛불집회 진압 계엄에 관한 모든 문건과 주고받은 지시 내용을 즉각 대통령에게 제출하라'는 특단의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 특전사 등이 모두 연루되어 있을 가

능성이 크다.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문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비상조치들을 나는 전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한다. '촛불집회 진압 계엄'과 같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안의 본질과 중대성, 그리고 긴박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고도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피눈물인 촛불로 어렵게 어렵게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주의가 뿌리 채 흔들려버리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와 군(軍) 민주화의 최선봉에 서서 잘 싸워주고 있는 '군 인권센터'에서 문건 작성 당사자들인 조연천 기무사령관 등을 군 검찰과 서울지방검찰청에 내내음모죄 등으로 이미 고발되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군 인권센터에게 큰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촛불집회 진압 계엄 문건' 소식을 언론을 통하여 듣고 나는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 등골에서 식은땀이 났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것이 되기 위하여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복병(伏兵)과 걸림돌이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절히 확인했다. 전 세계인의 찬사와 주시를 받으며 적폐(積

弊)를 청산하고 내 삶을 바꾸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온 국민의 눈물어린 열망과 비원(悲願)으로 진행되었던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해서 무력으로 짓밟아 뚱개버리지는 음모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꾸미고 진행시켰던 것이다.

나는 촛불집회 1차에서 23차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사람이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부터 초등학생, 시골 할아버지, 연인들, 대학생들, 가족들의 뜨겁고도 평화롭고 집회 모습들과 행진을 수없이 보았다. 그것은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로, 대하(大畵) 서사(敘事)였다.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켜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행진이었어, 승리였다.

'촛불집회 진압 계엄 문건'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요약한다. 첫째, 기무사는 과감히 해체되어야 한다. 댓글공작으로 정치개입, 세월호 유가족 감시와 탄압에 이어 이번 '촛불집회 진압 계엄 문건'으로 기무사는 더 이상 존립이 유효할 수 없다. 기무사는 없애 버리고 기무사 고유의 방첩과 보안 업무는 합동참모본부 등 다른 기관에 이관하면 된다.

기무사 전신인 전두환 보안사령부부터 1980년 12·12 군사비란을 주도하는 등 민주주의를 짓밟아버

린 죄과(罪過)도 너무나 크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민주주의를 짓밟아버려도 아무렇지 않다는 아주 잘못된 고약한 인식과 버르장머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채 뽑아버려야 한다. 사회에 나와서도 반민주적인 고약한 뉘세를 풍기고 다니는 기무사 출신을 만나서 역겨움을 당한 적도 있다.

둘째, 권력과 금력을 쥔 기득권 세력과 한 통속이 된 세력들은 돈 없고 힘없고 백없는 서민 대중을 대변하거나, 민주주의화하고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종북 좌파로 몰아버렸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고 73년 동안 분단하고도 부족해서 북한을 지금까지도 적으로 원수로 알고, 같은 피를 나는 형제자매인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평화협정도 맺고 교류협력하자고 해도 종북 좌파로 딱지를 붙였다. 이제 종북몰이 안보장사로 제미분 풀통 보수세력들은 정신 차리고 도도한 시대 흐름을 꼭 바로 바라보아야 한다.

셋째, 우리 국민의 사랑스러운 아들딸들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군대를 오랫동안 악용해온 보수 정당과 태국기만 들면 애국인중이라는 보수 단체들에게 한 마디 한다. 조국과 민주주의, 애국과 국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보여주기에 한 쇼가 아니고 뼈를 깎는 처절한 통찰과 고통의 강물을 건너가야 한다. 지난 대선과 6·13 지방선거에서 쓴말을 보고도 아직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옛날 적당할 정치적인 이미지 패키징, 진정성 없는 쇼로 속아 넘어갈 국민이 아니라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社說

장마철 '독버섯' 주의해야

야생 독버섯을 잘못 먹어서 사람이 숨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 사이 발생한 독버섯 중독 환자는 75명에 이르며 이 중 7명이 사망했다.

국내의 야생 독버섯 중독사고는 장마가 본격화되는 7월부터 10월 사이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 농진청은 야생버섯 발생이 많은 장마철에 버섯을 무분별하게 채집해 먹다가는 중독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은 1900여 종에 이른다. 이 중 먹을 수 있는 버섯은 400여 종(약 2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독버섯이거나 식용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다.

경계대상 1호 독버섯이 바로 노란다발이다. 노란다발은 참나무 등의 활엽수 그루터기에서 무리로 자라는 맹독성 버섯이다. 식용 버섯인 개암버섯과 형태적으로

유사해 독버섯 중독 사고를 자주 일으킨다.

맹독성인 노란다발을 먹을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단백뇨, 신경쇠약 등의 증상이 5~10시간 동안 지속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비나 시력 손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농진청은 독버섯과 식용·약용 버섯을 생김새나 민간 속설에 의존해 구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색이 화려하지 않은 버섯, 곤충이 먹은 흔적이 없는 버섯,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버섯, 세로로 잘 찢어지는 버섯 등은 먹을 수 있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독버섯 중독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독버섯 중독사고를 예방하려면 야생버섯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안전한 것은 나타리·괭이·양송이 등 농가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버섯을 구입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肆筵設席

肆筵設席

뜻: 자리를 베풀고 돛자리를 베풀니 연회(宴會)하는 좌석(座席)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맹독성 해파리 피서객 주의

여름철 하면 단연 피서와 해수욕장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여름철에 각종 물놀이 사건 사고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점점 열대성 기후의 특징을 띄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생태계가 점점 바뀌고 있다고 한다.

점점 열대성 기후를 띄고 있는 한반도 남해에는 포기드문 독성을 가지고 있는 해파리들의 분포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여름철 뉴스에는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던 피서객이 해파리에 쏘여 신체가마가 되어 바다에서 익사하는 뉴스들과 해파리의 독성에 과민반응을 보여 심정지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 사고를 종종 보도 되고 있다.

해파리에 쏘일 시 증상은 물속에서 놀다가 먼가 따끔하는 느낌

이 난다면 일단 해파리는 아인가의 의심을 해봐야 하며, 몸에 발간 발진이 일어나게 된다. 따끔하여 잠시 내버려두게 되면 육신거리고 상처에서 진물이 흘러 나오게 된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복통과 설사 또는 구토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심한 경우 마비증상도 나타날 수도 있다.

응급처치는 물밖으로 나와 해수욕장에 의무실을 바로 가는게 좋다. 무엇보다도 병원을 가서 진료를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응급처치를 할 경우 수돗물로 절대 세척을 하지 말고 바닷물로 씻어내는게 좋으며, 족수를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하는 것이 좋지만 무리해서 제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가족들과 즐거운 휴가철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즐겁게 놀고 있다하다가도 주기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즐거운 휴가철을 즐기기를 바란다.

김태현 / 영광소방서 행정대응단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